

IoT+AI로 지능형위치기반 서비스... '스마트시티 리더'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신관산업 이철재 대표

방범·보안을 위한 CCTV를 만들던 회사가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치기반서비스(LBS) 솔루션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다.

LB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떠오르고 있는 '언택트'에도 최적화된 기술로 꼽힌다.

특히 이 회사가 개발한 LBS 솔루션은 스마트폰과 결합, 미래 도시인 '스마트 시티'의 핵심 기술로 발전해 화재안전 대피, 분실·도난방지, 차매노인·미아방지, 통학안심, 반려동물찾기 등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서비스 실현을 바짝 앞당기고 있다.

2006년 설립해 약관의 나이가 채 되지 않은 신관산업과 창업자 이철재 대표의 이야기다.

"센싱과 알람, 그리고 이를 중앙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원천기술인데 여기에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더해 만든 게 지능형 위치기반 맞춤형 서비스 엔진과 플랫폼이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사업 분야."

서울 구로디지털밸리에서 만난 이철재 대표의 "짧막한" 회사 설명이다.

하지만 신관산업이 보유하고 있고, 자랑하는 기술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주택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IoT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이다.

이는 입주민이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이 깔린 스마트폰이나 IoT 스마트



이철재 신관산업 대표가 구로디지털밸리에 있는 본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키를 갖고 있으면 공동현관을 오갈때 자동으로 인식해 문을 열어주고, 주차된 차량의 위치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주차장이나 집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땐 스마트폰의 앱이나 스마트키의 비상벨을 누르면 방재실, 경비실 등과 실시간 양방향 소통도 가능하다. 이때 주변의 CCTV는 도움을 요청하는 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상태를 살핀다.

이대표는 "스마트 원패스"는 개인이 소지한 스마트폰 등을 식별해 위치를 파악하고 정보를 분석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공동현관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이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현관을 오가는 사람 중에서 인증되지 않은 사람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배터리 소모 문제가 가장 민감한 일이다. 하지만 신관산업

보안산업에 AI·IoT 등 기술 더해 '위치기반 서비스' 솔루션 선보여

공동현관 자동 개폐해주고

주차 차량 위치 확인하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눈길

'스마트시티' 플랫폼 목표

의 스마트 원패스는 이런 우려도 덜었다.

"스마트폰에 깔린 앱은 평소엔 구동되지 않는다. 그러다 차량이나 사람이 공동주택의 알림존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앱이 깨어나 작동한다. 또 5m 이내의 움직임은 세대안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슬립(sleep) 모드'로 들어가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다. 게다가 입주민들의 스마트폰만으로도 관련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에 몇 만원씩 하는 카드키 발급 이용도 아낄 수 있다." 이 대표가 사무실에서 관련 기기들을 직접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혹여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키를 분실했을 때도 등록된 기기를 서버에서 등록해제시키면 이를 습득한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신관산업은 'IoT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을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등에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이 기술은 아파트 단지를 넘어 도시 전체로 적용하기에도 충분하다. 바로 '스마트시티'다. 신관산업이 최종 목표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마침 정부도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을 중동, 동남아 등 해외로 수출을 모색하고 있어 기술력을 갖춘 신관산업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는 "기존에 유비쿼터스 신도시가 생겼고, 부산과 세종 등에 스마트 시티로 지정된 곳이 있긴 하지만 아직 기술 적용이 초기 단계인데다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LBS 기술은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위치정보 데이터 허브, 측위 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 LBS와 빅데이터 등 AI 기술을 접목하면 ▲차매노인·미아방지 서비스 ▲통학안심 서비스 ▲공유주차 서비스 ▲스마트 알람·서치 서비스 ▲스마트 트래킹 ▲스마트 화재감지 등 먼 미래의 일로 생각했던 '스마트'한 도시 구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화재안전대응 시스템을 예로 들어 보자. 스마트시티에 있는 고층 빌딩에 불이 났다. 관련 시스템은 공기의 질을 분석해 화재가 본격화될 때 나타나는 연기나 불꽃보다 먼저 화재를 알아차린다. 감지한 이상징후는 건물에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돼 대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게다가 AI를 통해 불이 난 사무실이나 복도 등 특정 공간에 몇 명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골든타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고, 제한된 소방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신관산업은 현재 관련 특허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 과제를 신청, 향후 공공조달시장 진입도 노리고 있다. 더 좋은 기술로, 가격은 기존 제품들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낮추면서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우리의 기술력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못했다. 기술력은 자신이 있다. 더욱 완벽한 서비스를 위한 연구개발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장악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가 꿈꾸는 스마트 시티와 목적지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진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A등급'

"고객중심 서비스 혁신 지속 추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13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가운데 중진공을 포함한 3개 기관이 A등급을 획

득했다. 전체 129개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21곳이다.

중진공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혁신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진공은 올해 4대 혁신방안으로 ▲스마트·디지털화를 통한 제조혁신과 일자리 창출 ▲사업효과성·효율성 강

화로 혁신성장기업 육성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및 조직성과 향상 ▲현장소통 강화를 통한 고객중심 경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객중심 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19일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 3번째부터)세종TP 윤석무 정책기획단장, 김현태 원장, 중소기업연구원 이병현 원장, 이미순 연구조정실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연

중기연-세종테크노파크 기업역량강화 등 '맞손'

중소기업연구원은 세종테크노파크(세종TP)와 '중소벤처기업 주도 산업발전 생태계 조성 및 기업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대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한샘 "여름 맞이 홈케어로 쾌적하게"

이달 말 까지 할인 이벤트

한샘은 '여름 맞이 홈케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샘의 홈케어 서비스인 '한샘홈케어'를 통해 여름 시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기 상품인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할인 ▲에어컨 케어 ▲매트리스 케어 등 3가지 서비스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여름 시즌 상품 3종 패키지 구매와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추가 할인과 사은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고강도 특수섬유 소재를 사용해 작은 벌레뿐 아니라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를 90% 이상 차단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은 이번 행사를 통해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구매 고객이 에어컨 케어 상품과 매트리스 케어 상품을 함께 구매하면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설치의 평형대에 따라 17만7100원에서 53만9000원에, 에어컨 케어는 방충망 설치와 함께 구매 시 20% 할인된 6만5600원에서 11만



한샘 홈케어 전문가가 에어컨 내부를 살균하고 있다.

4400원까지, 매트리스 케어는 방충망과 에어컨 케어와 함께 구매 시 사이즈에 따라 50% 할인된 2만3000원에서 2만8500원에 각각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창업진흥원 글로벌 피칭 경진대회 참가사 모집

창업진흥원은 오는 7월16일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 피칭 경진대회에 참가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에 속하는 피칭 경진대회에 참가해 창업 아이템을 홍보하고, 다국적 관계자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포르투갈의 웹서밋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바이 스위치 ▲

두바이 자이텍스의 피칭대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규모는 총 45개사 내외로, 뽑힌 창업기업들에게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Sparklabs)'과 함께 피칭 경진대회 우승을 위한 피칭 아카데미를 제공한다.

피칭 아카데미는 ▲피칭 멘토링 ▲피치덱 디자인 컨설팅 ▲피칭 리허설 등으로 구성된 창업기업 맞춤형 피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김승호 기자